

최근 (지난 9월 10일에서 17일까지) 퍼스트 스텝스 방문단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은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 교회와 평양의 관문지역에 위치한 형제산 구역을 공식적으로 이어주는 방문이었다. 약 1년 전 그레이스교회는 퍼스트 스텝스에 북한의 영양실조 상태의 어린이들을 돕는데 크게 관심을 보이면서 한 지역을 채택하여 집중적으로 협조하고 싶다고 전해왔다.

현재 형제산에는 3대의 바이타 카우와 전기가 필요 없는 바이카 카우라고 할 수 있는 바이타 고트(VitaGoat) 1대를 보냈으며 6세 미만의 어린이 3천 5백명에게 하루 1컵의 두유를 먹고 있다. 1만 5천명의 어린이들에게 두유공급을 하고 있는 기존의 남포와 원산에 추가된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레이스 교회의 박신일 목사와 밴쿠버 침례교회 (FIRST BAPTIST)의 전 수석 목사이셨던 브루스 밀레 박사 그리고 퍼스트 스텝스의 이사인 수잔 리치의 장남인 헤미시가 이번 방문에 동참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일행은 남포와 원산의 생산기지를 방문했는데 두 곳 모두 10월 수확시기가 오기 전까지 그들의 콩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물론 퍼스트 스텝스는 그들이 수확한 콩과 함께 겨울 동안 우리의 생산기지에 공급할 메주콩을 선적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6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급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CONCERN 이나 UN 세계식량계획과 같은 북한에 기지를 두고 지원하는 대규모 기구들이 올해 연말까지 북한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다른 큰 지원 기구들도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퍼스트 스텝스는 북한의 담당자들과 보다 더 긴밀히 협조하여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바이타 카우를 공급할 것이라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곳에 풍년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고 대규모 지원이 줄어들음으로 인해 영양실조와 굶주린 사람들이 증가될 수도 있다. 퍼스트 스텝스이 관망컨대, 동시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수도 같은 비율로 늘어갈 것이다. 북한의 담당자들은 바이타 카우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그들이 직접 생산하고 분배하면서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있어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크게 고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력수급, 에너지 부족, 도로 상태 그리고 통신의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한 문제들로 남아 있다.

퍼스트 스텝스의 이사들은 북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라곤 외부로부터 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외부로부터의” 지원 없이는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지속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